

02

데이터의 퍼즐을 맞추다, 납세자의 실수를 돕다

- 빅데이터 교차 검증을 통한 누락 세원 신고 지원기 -

프롤로그: 복잡한 세금, 실수할 수 있습니다

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국세청에 법인세를 내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,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또 내야 하고, 직원이 늘어나면 주민세 종업원분도 챙겨야 합니다. 특히 본점과 지점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기업의 경우, 세금을 각 지자체에 어떻게 나눠서(안분) 내야 할지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픕니다.

이 과정에서 단순한 계산 착오나 담당자의 실수로 세금을 덜 내거나, 과세지를 착오하여 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. 이런 경우 즉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강남구 지방소득세과는 생각했습니다. 무조건 추정하기보다는,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류를 먼저 찾아내고 기업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?

제1막: 흩어진 조각을 모으다

2025년 3월, 우리는 흩어져 있던 데이터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.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급여 자료, 국세청의 소득 자료, 그리고 우리 구청의 지방세 신고 자료. 이 거대한 공공 빅데이터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밀하게 대조했습니다.

그러자 보이지 않던 틈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A 기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인건비는 100억 원인데, 구청에 신고한 주민세 과표는 8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. B 기업은 강남구와 타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데, 직원 수와 면적 비율을 잘못 계산하여 강남구에 내야 할 세금을 덜 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. 우리는 이렇게 찾아낸 566건의 의심 사례들을 추렸습니다. 과거 같으면 바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냈겠지만,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. 우리는 이것을 신고 지원 서비스라고 불렀습니다.